

인물없이 표현하는 초상

'초상'. 흔히 특정 인물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이라 알고 있죠. 하지만 이런 1 차원 적 유사함 없이, 어떤 인물을 표현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? 사람의 모습이 빠진 초상은 어떻게 그 주인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?

스튜디오 세션 계획 (6주 수업 + 4 주 전시 작품)

Week 1. 사진가 Henry Leutwyler/ 사물의 상징적 의미 찾기. Rule of Third / 사물 사진 찍기

Week 2. 현대작가 Jim Dine / 감정을 투영 한 선과 마크 메이킹 / 사물 관찰 드로잉



Week 3. 사진가 Sophie Calle , Guillaume Amat 등/ 개인적 공간에 대한 분석. Composition / 거울을 이용한 사진찍기

Week 4. 현대 작가 Patrick Caulfield / 공간 나타내기/ 콜라주





Week 5. 사진가 Mariangela Gallo / 바디, 마크, 텍스츄어. Framing, Focusing / 접사 사진 찍기

Week 6. 현대작가 양혜규, Rowan Mersh / 점토를 이용한 텍스츄어 조형 (3D)



Week 7

- A. 주제에 대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생성
- B. 개인화된 콘텐츠 정하기
- C. 의도한 분위기와 구성 & 테크닉 선택

Week 8- 9. 전시작품 작업하기; 실험과 다듬기

Week 10. 프리젠테이션 & 전시

영국 예술 스튜디오. “인물없이 표현하는 초상”

강의 소개

예술 선진국, 영국에서는 예술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? 현지 공교육 교사로 13년간 일한 이 승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소개 합니다.

영국 교실/스튜디오의 환경 그대로, 설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에 맞춰 셀렉트 된 미술 작품들을 비평하고, 스스로의 생각을 꺼내어 토론하는 등 이론적인 면과 사진찍기,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배워 테스트하는 등 실기를 병행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‘인물없이 표현하는 초상’ 프로젝트는 사진과 미술 수업을 접목시킨 것으로 디지털 조작, 드로잉, 콜라주, 점토 (3D) 등을 활용 한 다양한 접근법을 배울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작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1:1, 그룹 보조, 피드백 등 가이드가 제공됩니다.

이 흥미로운 10주 코스의 완성은 주제에 관해 심화된 생각을 ‘나’ 만의 언어와 비주얼로 표현 한 전시작품 만들기 입니다.

의미있는 결과치를 내는 적극적 창의적 프로세스를 경험 해 보세요.

대상 청소년, 성인

이력

영국, 공교육 학교에서 13년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, 세계 랭킹 2위인 UAL 등 예술 명문 대학에 학생의 100%를 합격 시키는 물론 영국 왕립 미술관(RA)에까지 전시시킨 한국인 선생님.

- 현 No Frame Art & Education 디렉터. 영국 공립학교 예술과 컨설턴트
- 영국 공립 & 사립학교 예술과 교사 재직(2010-2022)
- 영국 캔터베리 크라이스트 대학, 대학원 졸업 (2010)
- 출판Publication - Gender & Art Education. NSEAD
How to Measure Creativity?. IMPACT
- 전시Exhibition - Sidney Cooper Gallery, UCA 그룹전 외 다수
- 강연 - 구수산 도서관 특별강연 (3회)

<https://www.noframearteducation.com/>